

2006년 양돈 사료 산업에 대한 결산



한국사료협회 조사팀 김치영 부장

배합사료 생산

금년도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축산물 가격의 안정기조 위에서 양축농민들의 사육심리가 회복되면서 소폭의 생산증가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를 비롯한 원료가격이 폭등하고, 하반기에 들어 환율 또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사료업계는 근래 보기 드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을 보면 12,807천톤으로 2005년의 12,436천톤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수년동안 우리나라의 사료업계가 정체현상을 보이며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양계산물의 호황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육계사료 생산량이 0.7% 감소하였고, 산란계 사료 생산량은 2.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양계용 사료 생산량은 1.3% 증가하였다. 반면 비육우용 사료는 한우 가격의 강세에 따른 신규입

식의 증가로 8.9%나 크게 증가하였고, 양돈용 사료는 0.3%, 기타사료는 12.0% 증가하였으나 낙농용 사료는 2.4%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체적으로는 3.0% 증가하였으나 축종별로는 양계사료 생산량이 둔화된 반면 비육우용 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계사료 비중이 높은 사료협회 회원사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반면 비육우 사료비중이 높은 농협의 사료 생산량은 7.0%나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질병의 여파로 인해 크게 감소세를 보였던 양돈 사료생산량도 금년에는 미미하나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입자유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비육우용 사료도 최근 몇 년 동안의 고가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오리고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웰빙 수요마저 가세하면서 오리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리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타 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12%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4년까지 기타사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개사료가 2005년을 기점으로 오리사료에 밀려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2006년 10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아직도 침체일로에 놓여 있는 국내 내수경기가 크게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축산물 수요증

가분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대체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한미 FTA등으로 인한 양축농민들의 사육심리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 들어 배합사료의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향후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생산비 압박(Cost Push)현상이 더욱 거세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사료회사는 물론 양축농민들의 경영수지의 악화와 함께 가축의 사육두수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전반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안정

〈표 1〉 2006년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 톤, %)

구분	2006. 1~10월 (A)	2005. 1~10월 (B)	누계대비 A/B(%)
양계	3,567,423 27.9	3,526,812 28.4	101.2
양돈	4,248,992 33.2	4,237,416 34.1	100.3
낙농	1,285,786 10.0	1,316,973 10.6	97.6
비육	2,947,367 23.0	2,678,619 21.5	110.0
기타	757,765 5.9	676,811 5.4	112.0
계	12,807,333 100.0	12,436,631 100.0	103.0

※ 2006년 10월말 기준임.

을 보였고, 배합사료가격도 낮은 원료가격 위에서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인하와 할인판매까지 가능했으나, 금년 들어 전세계적인 유가폭등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료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환율도 금년 하반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사료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배합사료가격의 상승과 함께 양축농가의 사육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배합사료 생산량 역시 지금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해 나가기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배합사료 가격

금년 들어 사료용 곡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료업계와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금년 초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의 상승은 곡물 교역시 해상운임의 상승은 물론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곡물이용이 증가되면서 사료원료 수급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사료곡물의 수입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최근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등 대체연료의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 사료곡물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생산이 급

증하면서 사료곡물의 수급이 불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0월 12일 발표한 미국 농무성의 세계 옥수수 수급현황을 보면 2006/2007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상황은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비해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옥수수 재고수준도 11.2%로 근래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2〉 미국의 옥수수 수급실적

(06/07 USDA Report, '06년 10월 발표)

(단위 : 백만톤)

	공급			수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국 내		수 출	
				사료용	전체		
2006/07 (전망)							
세 계	124.55	689.14	78.96	477.93	724.14	81.28	89.54
미 국	50.06	277.00	0.25	154.95	244.87	57.15	25.29
2005/06 (추정)							
세 계	130.53	692.44	77.66	473.69	698.72	77.18	124.55
미 국	53.70	282.26	0.28	155.99	231.57	54.61	50.06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옥수수 수급 불안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의 옥수수 공급으로 사료원료 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던 중국의 경우도 생산의 증가보다도 더 큰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경우도 생산증가는 불투명한 가운데 자국 내 에탄올 생산증

무엇보다도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규모를 통한 축산물 가격의 안정과 함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가로 인해 자국 내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2006/2007년의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은 미국이 70%, 아르헨티나 14%, 중국 5%, 로 미국의 수출시장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도 지난해의 경우 3개년 동안 지속적인 팽작으로 50.06백만톤까지 이르렀으나 2006/2007년도에는 25.29백만톤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우려할만한 재고수준에 대해 미 농무성은 향후 미국의 옥수수 경작지역의 확대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공급량을 증대시켜 미국의 사료용 및 공업용 옥수수의 수출과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수급 불안정이 예견되면서 시카고 곡물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하여 옥수수 가격을 사상유례없는 가격으로 폭등시키고 있다.

이처럼 옥수수 가격이 폭

등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1998/1999년 이후 8년동안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연평균 40% 이상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에 따라 미국 내 에탄올 옥수수 사용량은 2005년의 경우 미국 내 옥수수의 전체 사용량인 230.5백만톤의 15.9%인 36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에는 54백만톤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참조>

이같은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요량의 증가로 인하여 2006/2007년도 미산 옥수수 재고수준은 7.9%로 23년이래 최저의 재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

<표 3> 미국 내 옥수수의 총수요량 및 에탄올용 수요량 현황

(단위 : 백만톤)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생산량	241.5	228.8	256.9	299.9	282.3
총수요량(A)	199.9	201.6	212.2	222.5	230.5
에탄올용(B)	17.3	20.8	27.4	32.0	36.3
B/A(%)	8.7	10.3	12.9	14.4	15.9

로 전망되면서 옥수수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세계 곡물 시장의 특성상 사료용 소맥과 호밀, 보리, 수수 등은 물론 기타 곡물 가공부산물인 소맥피, 대두박 등의 사료용 원료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대체원료로 활용되던 열대식물성 박류인 팜박, 야자박 등의 가격급등까지 가세하고 있고, 유제품 생산국들의 유제품 생산마저 감소하며 사료용 대용유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산 옥수수 가격은 11월 17일 현재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12월도 선물가격이 뷰셀당 3.5525불로 금년 1월분 선물가격인 2.1450불에 비해 약 65.5%가 상승하였고,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미산 옥수수의 C&F가격도 금년 1월 평균 139불에서 217불로 크게 올랐으며, 이미 200불 이상에서 옥수수가 구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중 원재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중 사료비가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입 원료 가격의 폭등은 앞으로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은 물론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축산물 가격과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양축농가는 물론 사료업계가 지속적인 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배합사료 생산을 시현하

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향후 배합사료 가격상승과 축산물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사료산업과 축산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선진국과 비교하여 배합사료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제도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료원료의 관세인하와 함께 원료 수입시 선택 폭을 늘려주기 위해서 일부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규모를 통한 축산물 가격의 안정과 함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